

여야 정치권 총결집...광주정신 기리고 민심 잡기

민주당, 대선주자·당 지도부·초선의원 모임 '더 민초' 총출동 유족회 초청 받은 국민의힘 의원들·잠룡들과 함께 호남 구애

더불어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 제41주기를 맞아 일제히 광주에 '화력'을 쏟아 붓고 있다. 대권 주자들과 당 지도부, 초선의원들까지 광주를 찾아 '덧밭'에 대한 애정을 표시하며 민심 다지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과 야권 잠룡들도 잇따라 광주를 찾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는 등 여야의 5·18 호남 민심잡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8일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리는 기념식에 참석해 민주열사 묘역을 참배한다. 민주화열사 묘역과 관련한 비공개 일정도 검토하고 있다.

송 대표는 17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한 야권을 향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다시는 5·18에 대한 왜곡 발언 등으로 연결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진정으로 5·18정신을 계승하는 실천적 모습을 보여줄지 바란다"고 당부했다.

당내 쏜신 주축으로 거듭나며 비중이 커진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 구성원들도 이날 호남을 찾았다. 김영민·박주민 등 30여명의 의원들은 이날 오전 목포 신항만 내 세월호 거처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오후에는 광주로 이동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여권 빅3 대선주자들을 비롯한 여권 대권 주자들도 5·18 41주년 기념식을 계기로 광주로 집합하고 있다. 대권 경선을 앞두고 텃밭인 호남에서의 민심 확보가 우선이라는 점에서 총력전을 펼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부터 이틀간 호남에 머

무르며 '대세론 굳히기'에 나선다. 이 지사는 이날 저녁 5·18 첫 희생자인 이세준 열사의 추모행사에 참석한 뒤 18일에는 광주로 이동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이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13일부터 3박 4일간 광주에 머무르며 지역 표심을 다지고 있다. 시간을 10분 단위로 쪼개가며 당원과 일반 시민들을 만나며 표발을 다지고 있다. 그는 지난 16일 오후 초 자신이 꺼냈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공식으로 사과하는 한편, 개헌 촉구를 담은 '광주구상'을 제안하며 사실상의 출마 선언을 했다. 민주당의 심장부인 광주에서부터 지지세를 확보하려는 총력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역시 지난 주부터 호남권에서 일정을 소화중이다. 지난 12-16일 자신의 고향이자 정치적 기반인 전북을 돌리던 정 총리는 16일 전남으로 이동해 여순사건 위령비를 참배한 뒤 17일 순천을 방문, 경전선 전철화 사업 대상지를 둘러봤다. 이어 18일에는 광주로 이동해 5·18 기념식에 참석한다. 정 전 총리의 이번 호남 행보는 정치권 내외의 넓은 지지층을 바탕으로, 세 과외와 조직 다지기를 통해 대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야권 잠룡들도 광주를 찾아 5·18 정신을 강조하며 호남 민심 구애를 벌였다. 17일 국립 5·18 묘지에서 열린 추모제에 국민의힘 정운천·성일중 의원이 5월 유족회의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 그동안 보수 정당 인사가 추모제에 초청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그동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 소속 의원들이 17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안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시절 전·현직 의원들의 5·18에 대한 왜곡·편파 발언과 보수정권 시절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문제로 논란이 됐던 것과 비교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정 의원은 참배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드디어 오늘로써 40년 두꺼운 벽을 넘은 것 같다"며 "5·18 정신이 국민 통합으로 이어져야 한다

는 생각으로 혼신의 힘을 다 해왔던 것이 오늘에 이르러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성 의원 또한, "마음을 열고 따뜻하게 유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광주의 정신이 더 빛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야권의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광주를 찾아 기자회견을 한 뒤 5·18 묘지를 참

배했다. 유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정신으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18 정신은 결국 헌법 1조에 나온 민주와 공화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5·18 민주화운동이 기폭제가 돼서 87년 6월 항쟁이 있었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에 살아숨쉬는 나라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대선 출마 선언 양승조 충남도지사



“‘양극화·저출산·고령화’ 3대 위기 해결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 만들겠다”

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17일 “양극화·저출산·고령화라는 대한민국 3대 위기를 해결해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 일답.

-광역단체장으로는 첫 출마선언이다. 출마 이유는.

▲대한민국의 3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세계 9위 경제대국이지만, 무주택자는 전체 가구의 43.7%에 달한다. 출산율 또한 지난해 0.84명으로, 세계 198개국 중 ‘꼴지’다. 고령화 비율도 16%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양극화·저출산·고령화 등 대한민국 3대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모두가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대권 도전에 나섰다.

-대선이 1년도 남지 않았다.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단연코 사회 양극화 해소가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양극화를 해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나라가 아무리 부강해지고 선진국이 되더라도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여권에서 이재명·이낙연·정세균 등 쟁쟁한 후보

정권 재창출 총청 민심 얻어야
달빛내륙철도 건설 반드시 필요

들이 있다. 본인의 강점은.

▲세 분 모두 정치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검증되고 훌륭한 분들이다. 제가 12년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하고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가장 정확한 문제 인식을 했다. 그리고 충남 도정을 3년간 수행하면서 3대 위기 극복을 위한 선도모형을 창출했고, 혁신을 성공으로 이끈 경험과 노하우를 갖췄다.

-후발주자로서 경선 전략은 있다.

▲여권에서 유일한 총청 출신이다. 총청을 대표해 출마한 만큼 총청 표심을 집결시키고, 총청의 에너지 모으는 것이 첫 번째 전략이다. 천안에서 태어나 학교를 다녔고,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시민단체 활동을 해왔다. 지역민들과 함께 지역에서 봉사하고 헌신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대한민국 3대 위기 극복의 선진모형을 경선과정에서 많은 국

민들이 이해를 해주고 이를 맡길 책임자가 누구인지 판단해주시길 것으로 믿는다.

-하지만 최근 윤석열 ‘총청 대망론’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총청대망론’은 터무니 없는 이야기다. 윤 전 검찰총장은 검사로서 훌륭할지 모르지만, 충청도에서 생활한 적도 없고 충청도 지역발전과 이익을 대변한 경험도 없다. 아버지가 공주에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총청권 대망론’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언어도단이다. 그리고 560만 충청인의 모욕이다.

-그렇다면 본인이 총청 대망론의 적임자라고 생각하나.

▲여권 대선 주자 중 저에게는 상대적으로 총청이라는 지역기반이 있다. 그동안의 대선에서는 항상 지역적 변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동안 민주당의 대선에서 총청의 역할이 컸다. 김대중 대통령의 승리에는 ‘DJP연합’이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의 승리에는 ‘행정수도 이전’이 있었다. 민주당이 재집권을 위해서는 총청 민심을 얻어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제가 ‘DJP연합’이고, 행정수도가 돼 민주당

승리를 책임질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 대선 경선 연기론이 나오고 있다.

▲선수는 물을 따져서는 안 된다. 정해진 룰에 따라 경기에 임하는 게 기본 입장이다. 상대 당 후보 선출보다 조기 선출이 당에 유리하나, 불리하느냐를 따지는 것은 지도부의 몫이다.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이다. 5·18 정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5·18정신은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정신을 기리고 실천해야한다. 더불어잘사는 대한민국, 민중의 숙원사업인 남북통일 가도를 잇는 것이 5·18 정신의 완성이라고 생각한다.

-광주·전남 등 호남지역에 대한 미래 비전은

▲우선 영호남의 현안인 달빛내륙철도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실현이다. 지역 불균형 해소와 광주·대구의 남부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군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제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해 보세요!

-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첨단우리병원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특 특

3대 실명질환! 당뇨망막병증이란?

- ◆ **당뇨망막병증**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해 시력에 가장 중요한 망막조직에 문제가 발생하는 병으로 성인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혈관 주위 부종과 출혈이 발생하게 돼 시력저하가 일어나는 병입니다.
- ◆ **증상**
당뇨망막병증은 초기, 중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시력이 정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점차 심해져 말기가 되면 신장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서 시력이 저하되고 시야에 벌레나 먼지 같은 무언가가 떠다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거나 커튼을 친 것처럼 가려 보이는 증상, 광시증, 눈부심 등이 동반됩니다.
- ◆ **종류**
당뇨망막병증은 크게 비증식성과 증식성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비증식성은 망막의 혈관이 점점 약해지며 혈청이 새거나 혈관이

막히며 망막의 영양 공급이 끊겨 시력이 나빠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당뇨망막병증 환자 대부분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식성은 비증식성인 혈관들이 나타나 증식하고, 유리체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며, 섬유혈관막이 증식하면 망막을 잡아당겨 망막박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 ◆ **치료**
당뇨망막병증 치료는 진행시기와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철저하게 혈당조절을 함으로써 당뇨망막병증을 억제하고, 여기에 망막혈관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꾸준히 망막영양제 혹은 망막혈액순환 개선제 등을 복용하면서 주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합니다. 당뇨망막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나 주사치료, 초자체절제술 및 유리체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